

---

# 사회체육활동 참여 제약과 동기 및 정도의 관계

## Relationship between Constraint, Motive and Degree of Participation in Sport for All

---

김경식

호서대학교 사회체육학과

Kyong-Sik Kim(kks7@hoseo.edu)

---

### 요약

이 연구는 사회체육활동 참가 제약과 동기 및 정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2007년 천안아산지역 거주 만 19세 이상의 사회체육활동 참가자를 모집단으로 선정한 다음 집락무선표집법을 이용하여 총 400명을 표집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설문지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신뢰도분석의 알파값과 공변량구조분석의 최대우도법을 이용하였다. 설문지의 타당도는 외생변수의 경우 .812, 내생변수의 경우 .528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설문지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값이 .657이상으로 나타났다. 자료처리 방법은 신뢰도분석, 확인적 요인분석과 공변량구조분석 등이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체육활동 참가 제약 가운데 구조적 제약이 클수록 사회적, 휴식적 동기는 약화된다. 둘째, 사회체육활동 참가 동기 가운데 사회적 동기가 높을수록 참가 빈도는 증가하며, 휴식적 동기가 클수록 참가 기간은 감소한다. 셋째, 사회체육활동 참가 제약 가운데 구조적 제약이 클수록 참가 기간은 감소하며, 개인내적 제약이 클수록 참가 빈도와 강도는 감소한다.

■ 중심어 : | 사회체육활동 참가 제약 | 참가 동기 | 참가 정도 |

### Abstract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constraint, motive and degree of participation in sport for all. To attain the goal of this study described above paragraphs, the peoples dwelling in Chungnam, 2007 year were set as a collected group. Then, stratified cluster random sampling method, finally drew out and analyzed 400 people in total. The result of reliability check up was here below; over Chronbach's  $\alpha$ =.687. To analyze materials, reliability analysis, CFA and SEM were used as statistic analysis techniques. The conclusion based on above study method and the result of material analysis are here below. First, constraint influence on the motive of participation in sport for all. Second, motive influence on the degree of participation in sport for all. Third, constraint influence on the degree of participation in sport for all.

■ keyword : | Constraint | Motive | Degree of Participation |

## 1. 서론

그동안 체육학 연구영역에서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온 주제는 사회체육활동 참가 제약과 참가의 관계라 할 수 있다. 사회체육활동 참가는 사회체육활동 참가 제약 변수에 의해 자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사회체육활동 참가 제약이 사회체육활동 참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사회체육활동 참가에 대한 영향정도과 방향, 그리고 사회체육활동 참가 제약 하위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에 대한 분석과 논의가 사회체육 활성화 측면에서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체육학 연구영역에서는 사회체육활동 참가 제약 척도가 부재한 까닭에 사회체육활동 참가 제약과 참가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가 어려웠었다. 다만, 기존의 여가제약 변수를 그대로 활용하여 여가제약이 사회체육활동 참가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함으로써 어떠한 제약 요인에 의해 참가가 결정되고 이루어지는가를 간접적으로 분석하였을 따름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회체육활동 참가 제약 척도가 개발되면서 사회체육활동 참가 제약과 참가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가 가능해졌다. 김정식·권민혁(2007)[2]은 사회체육활동 참가 제약 척도 개발과 적용이라는 연구에서 사회체육활동 참가 제약 척도의 개발이 사회체육활동 참가 현상을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도와주고 실질적인 정책 자료를 제시해 주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사회체육활동 참가 제약에 관한 연구는 정부의 사회체육 정책 주요 골자인 스포츠에로의 사회화와 운동참가지속 등 사회체육 활성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여러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최근에 여러 선행연구들은 제약 요인이 직접적으로 참가를 어렵게 하거나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는데, 이는 동기 변수의 역할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제약, 동기, 그리고 참가 변수간의 인과성을 가정하기 위해서는 사회체육활동 참가 제약과 관련된 연구가 미비하므로 여가제약에 관한 선행연구를 고찰해야 할 것이다. 제약, 동기, 참가 변수간의 인과성은 Jackson (1993)[13]의 연구에 의해 확고해졌으며, Crawford 등(1991)[11]은 여

가제약 모형에 타협과정과 동기의 역할을 추가, 설명함으로써 여가동기 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여가참가는 여가제약에 대한 성공적인 타협의 결과이며, 타협과 타협과정의 결과는 모두 동기와 제약의 상대적 크기와 상호작용에 달려있다고[13] 하였다. 이밖에도 여가제약의 타협과정에 있어서 여가동기의 역할과 중요성은 여러 선행연구[7][10][15][12]에 의해 경험적으로 밝혀지고 있다. 국내의 경우에는 소수의 연구[4]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들 선행연구들은 여가제약 모형에서 여가동기를 하나의 단일 개념 변수로 가정함으로써 어떠한 동기 요인에 의해 여가참가가 이루어지는가를 구체적으로 규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여가동기는 여가제약에 관한 연구에서 그다지 많은 주목을 받지 못한 변수였다. 그러나 Carroll과 Alexandris(1997)[10], Hubbard와 Mannell(2001)[12], Jackson (2000)[13] 등은 여가제약과 여가참가에 관한 연구에서 여가동기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함께 전개되어야 함을 강조함으로써 여가동기 연구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특히 Jackson(2000)[14]은 일반대중의 여가선택과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긍정적 요인(여가동기와 기대된 이익)과 부정적 요인(여가제약)을 함께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연구는 다차원적 하위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여가동기를 사회체육활동 참가동기로 변환하여 동기 변수를 설정하고자 한다.

사회체육은 여가의 영역에 속하긴 하나, 여가의 다른 영역과는 구별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체육활동 참가 제약은 여가제약과는 상이하게 나타나고, 참가 동기나 정도에도 미치는 영향 또한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지금까지 체육학 연구영역에서는 여가의 특정영역인 사회체육의 참가 제약과 참가 동기 및 정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기존의 여가제약, 여가동기, 여가참가에 관한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여 사회체육활동 참가 제약과 동기 및 정도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체육학 지식체 형성에 기여함은 물론, 사회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필요

성이 있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체육활동 참가 제약과 동기 및 정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모형을 설정한 다음, 이론가꾸기를 통하여 현실 적합도를 검증하고, 나아가 모델에 포함된 변수들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 II. 연구모형 및 가설 설정

### 1. 연구모형

이 연구는 사회체육활동 참가 제약과 동기 및 정도 등의 관련 변수를 중심으로 이론적 가정 및 선행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론(개념)변수와 관찰(측정)변수의 관계를 가정한 연구모형을 설정하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사회체육활동 참가 제약 관찰변수의 속성이 모두 상이하어 이들 변수를 하나의 이론변수로 구성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즉, 사회체육활동 참가 제약의 이론변수로 구성할 경우 어떠한 참가 제약의 측정변수가 참가 동기나 정도에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할 수 없다. 또한 하나의 개념변수에 사회체육활동 참가 제약과 같이 상이한 상대적 개념의 측정변수가 존재할 때에는 이들 측정변수를 하나의 개념변수로 묶어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각각의 특성을 살펴주어야 올바른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사회체육활동 참가 제약, 동기, 정도 변수를 일관성 있게 이론변수이자 관찰변수로 가정하여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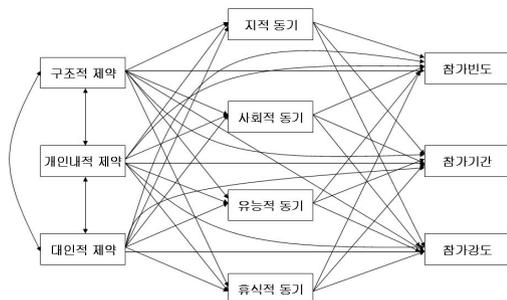


그림 1. 사회체육활동 참가 제약과 동기 및 정도에 관한 연구모형

### 2. 연구가설

사회체육활동 참가 제약과 참가 동기 및 정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적 명제를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가설1. 사회체육활동 참가 제약은 참가 동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사회체육활동 참가 동기는 참가 정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사회체육활동 참가 제약은 참가 정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07년 천안아산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을 모집단으로 선정한다. 다음, 집락무선 표집법을 활용하여 약 400명의 표본을 추출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먼저 천안 행정구역 시내 15개 동, 8개 면, 4개 읍과 아산 행정구역 시내 6개 동, 12개 면에 일련번호를 부여한 후 표집틀로 작성한 다음, 난수표를 이용하여 천안 지역에서 2개 동, 1개 면, 1개 읍과 아산 지역에서 2개 동, 2개 면을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시군에서는 주 2회 이상 사회체육활동 참가자를 무작위로 100명씩, 총 400명의 표본을 추출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체육활동 비참가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사회체육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사회체육 시설을 방문하여 표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최종분석에 사용된 표본수는 379명(남자 227명, 여자 152명)이다.

###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사회체육활동 참가 제약과 동기 및 정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자료수집 도구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설문지는 크게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관한 항목 6개 문항, 사회체육활동 참가 제약 23개 문항, 사회체육활동 참가 동기 30개 문항, 사회체육활동 참가 정도 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인구학적 특성 설문지는 성, 연령, 학력, 수입, 직업, 건강정도로 구성

하였다. 사회체육활동 참가 제약은 일반대중의 체육활동을 방해하는 구조적, 개인내적, 대인적 제약으로 규정할 수 있다. 사회체육활동 참가 제약 설문지는 김경식·권민혁(2007)[2]에 의해 개발 사용된 척도이다. 사회체육활동 참가 제약은 구조적 제약(11개 문항), 개인내적 제약(7개 문항), 대인적 제약(4개 문항) 요인으로 구성된다. 김경식·권민혁(2007)[2]의 연구에서 사용된 사회체육활동 참가 제약은 전문가회의를 통하여 하위개념이 축소되었는데, 이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그 타당성이 검증되었다. 구조적 제약은 시설, 지도자, 프로그램, 시간 제약으로 구성되며, 개인내적 제약은 심리적, 운동기능적, 신체적 제약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대인적 제약은 동반자, 주변의식 제약으로 구성되었다. 사회체육활동 참가 동기 설문지는 원형중(1998)[5]이 번안한 척도이다. 참가 동기는 지적 동기(8개 문항), 사회적 동기(8개 문항), 유능적 동기(8개 문항), 휴식적 동기(8개 문항)로 구성되었다. 사회체육 참가제약과 동기는 ‘매우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단계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체육활동 참가 정도는 참가 빈도, 기간, 강도로 측정된다. 참가 빈도는 주당 참가횟수, 참가 기간은 몇 년 몇 개월, 그리고 참가 강도는 몇 시간 몇 분으로 측정하였다. 사회체육활동 참가 제약과 참가 동기 설문지는 ‘매우 그렇다(5점)’에서 ‘매우 그렇지 않다(1점)’까지 5단계 리커트 척도로 측정된다.

### 3. 설문지의 타당도 및 신뢰도

타당도는 연구자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나 속성을 정확히 측정하고 있는가를 의미한다. 즉, 특정 개념이나 속성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측정도구가 해당 속성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가와 관련된 문제이다. 설문지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를 통하여 설문지에 대한 검토 및 논평을 요청한 후 내용타당도 및 문항의 적합성 여부를 논의하고 지적된 사항을 수정·반영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을 검증하기에 앞서 외생변수와 내생변수를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실시하여 최종타당도를 검증하였다.

[표 1]은 측정모델의 추정치 및 신뢰도와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이다.

표 1. SEM 최대우도법에 의한 외생내생 변수의 요인 부하량 및 신뢰도계수

구성개념/ 측정척도	표준치	측정오차	Cronbach's α
<b>【사회체육 참가 제약】</b>			
구조적 제약	.877***	.216*	.942
개인내적 제약	.932***	.296***	.870
대인적 제약	.812***	.093	.771
<b>【사회체육 참가 동기】</b>			
지적 동기	.873***	.343***	.956
사회적 동기	.911***	.245***	.940
유능적 동기	.781***	.466***	.930
휴식적 동기	.727***	.594***	.942
<b>【사회체육 참가 정도】</b>			
참가빈도	.656***	.523***	.657
참가기간	.528***	.554***	
참가강도	.801***	.355***	

\*\*\* p<.001

[표 1]에 의하면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공변량구조분석의 최대우도법을 이용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외생변수의 경우 .812, 내생변수의 경우 .528이상 나타남으로써 구성타당성이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지의 신뢰도는 Cronbach's α값이 .657이상으로 나타났다.

### 4. 조사절차 및 자료처리

설문 조사는 사전에 설문지에 관하여 교육을 받은 보조 조사원 9명이 해당 지역을 방문하여 관계자나 피면접자의 협조를 받은 다음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의 응답결과를 기입한 자료를 회수한 후 응답내용이 부실하거나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극단치(outlier)를 분석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입력된 자료는 SPSSWIN 15.0과 AMOS 5.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료분석의 목적에 따라 전산처리 하였다. 자료처리방법은 신뢰도분석(reliability analysis), 공변량구조분석(SEM: structural equation model) 등의 통계기법이 활용되었다.

## IV. 결과분석

### 1. 연구모델의 적합도 검증

[표 2]는 연구모델에 대한 적합도를 나타내는 결과이다.

표 2. 연구모델의 적합도 지수

전반적 지수	$\chi^2(df) / p$	기초 부합 (GFI)	조정 부합 지수 (RMSEA)	근사원소 평균 자승오차 (NNFI)	비표준 부합 지수 (CFI)	비교 부합 지수
연구모델	1108.116 (12) / .000	.507	.658	.317	.504	.608
적합기준	$p > .05$	$\geq .90$	$\geq .90$	$\leq .08$	$\geq .90$	$\geq .90$
판정결과	부적합	부적합	부적합	부적합	부적합	부적합

[표 2]에 의하면 이 연구의 모형은  $\chi^2$ 값이 1108.1로 매우 높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alpha=.000$ ) 현실과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GFI와 NNFI 지수 역시 적합기준을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모델이 적합치 않은 이유는 다수의 추정계수가 무의미하고 추정오차항간의 공분산(covariance)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모델 개발을 위한 모델 수정 과정 제안을 따라야 한다[8]. 본 연구에서는 모델의 부적합한 수치를 개선시켜 나가는 방법으로 1) 항목을 모델에서 제거시키는 방법, 2) 추정오차의 상관을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수정모델로 ‘구조적 제약 → 지적 동기, 유능적 동기, 참가빈도, 참가강도’, ‘개인내적 제약 → 지적 동기, 사회적 동기, 유능적 동기, 휴식적 동기, 참가기간’, ‘대인적 제약 → 지적 동기, 사회적 동기, 유능적 동기, 휴식적 동기, 참가빈도, 참가기간, 참가강도’, ‘지적 동기 → 참가빈도, 참가기간, 참가강도’, ‘사회적 동기 → 참가기간, 참가강도’, ‘유능적 동기 → 참가빈도, 참가강도’, ‘휴식적 동기 → 참가빈도, 참가강도’의 추정계수를 제거하고, 오차항  $e1 \leftrightarrow e2, e2 \leftrightarrow e3, e1 \leftrightarrow e3, e4 \leftrightarrow e5, e6 \leftrightarrow e7, e8 \leftrightarrow e9$  간의 공변량을 자유시켰다. 그 결과, 수정모델은  $\chi^2$ 값이 32.949, 자유도(df) 25, 이의

유의도  $\alpha=.132$ 로 나타났다.

수정모델은 연구모델에 비해 카이자승치( $\chi^2$ )가 감소하면서 자유도에 거의 근접하는 낮은 값을 지니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실제 분석에 투입된 관찰치와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즉, 수정모델이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표본이 모집단을 잘 설명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6].

[표 3]은 수정모델과 연구모델에 대한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이다.

표 3. 수정모델과 연구모델의 적합도 비교 평가

모델	수정	$\chi^2(df) / p$	GFI	AGFI	RMSEA	NNFI	CFI
수정모델	•통계적 유의성 없는 경로 제거 •공변량 자유화	32.949 (25) / .132	.974	.942	.036	.973	.993
연구모델과 수정모델의 비교		$\nabla(\nabla) / \Delta$	$\Delta$	$\Delta$	$\nabla$	$\Delta$	$\Delta$
판정결과	매우 적합	매우 적합	매우 적합	매우 적합	매우 적합	매우 적합	매우 적합

이 연구에서는 연구모델과 수정모델을 비교하여 모델 채택여부를 결정하였다. 위의 결과는 수정모델이 연구모델에 비해 적합도 측면에서 비교적 우수한 모델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수정모델은 적합도 지수(GFI, AGFI, RMSEA, NNFI, CFI)가 연구모델에 비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비교적 우수한 모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정모델을 최종적인 사회체육활동 참가 제약과 동기 및 정도에 관한 모델로 제안하고자 한다.

### 2. 가설검증

가설검증 및 제안모델을 제시하면 [표 3]과 같다. [표 3]에 의하면, 가설 1에서는 구조적 제약이 사회적 동기와 휴식적 동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가설 2에서는 사회적 동기가 참가 빈도에, 유능적 동기와 휴식적 동기가 참가 기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3에서는 구조적 제약이 참가 기간에, 개인내적 제약이 참가 빈도와 강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가설검증

	가설경로	경로계수	유의도	가설
가설 1	구조적 제약 → 지적 동기	-.083	.182	기각
	구조적 제약 → 사회적 동기	<b>-.103</b>	<b>.004</b>	<b>채택</b>
	구조적 제약 → 유능적 동기	-.098	.127	기각
	구조적 제약 → 휴식적 동기	<b>-.102</b>	<b>.018</b>	<b>채택</b>
	개인내적 제약 → 지적 동기	-.069	.268	기각
	개인내적 제약 → 사회적 동기	-.097	.079	기각
	개인내적 제약 → 유능적 동기	-.044	.492	기각
	개인내적 제약 → 휴식적 동기	-.084	.174	기각
	대인적 제약 → 지적 동기	-.079	.270	기각
	대인적 제약 → 사회적 동기	-.077	.196	기각
대인적 제약 → 유능적 동기	-.014	.822	기각	
대인적 제약 → 휴식적 동기	-.097	.125	기각	
가설 2	지적 동기 → 참가 빈도	-.018	.772	기각
	지적 동기 → 참가 기간	.023	.716	기각
	지적 동기 → 참가 강도	.021	.736	기각
	사회적 동기 → 참가 빈도	<b>.123</b>	<b>.022</b>	<b>채택</b>
	사회적 동기 → 참가 기간	-.038	.554	기각
	사회적 동기 → 참가 강도	.022	.737	기각
	유능적 동기 → 참가 빈도	-.091	.124	기각
	유능적 동기 → 참가 기간	<b>.207</b>	<b>.008</b>	<b>채택</b>
	유능적 동기 → 참가 강도	-.049	.415	기각
	휴식적 동기 → 참가 빈도	.056	.362	기각
휴식적 동기 → 참가 기간	<b>-.206</b>	<b>.009</b>	<b>채택</b>	
휴식적 동기 → 참가 강도	.097	.124	기각	
가설 3	구조적 제약 → 참가 빈도	.032	.602	기각
	구조적 제약 → 참가 기간	<b>-.263</b>	<b>.000</b>	<b>채택</b>
	구조적 제약 → 참가 강도	-.087	.165	기각
	개인내적 제약 → 참가 빈도	<b>-.317</b>	<b>.000</b>	<b>채택</b>
	개인내적 제약 → 참가 기간	-.091	.139	기각
	개인내적 제약 → 참가 강도	<b>-.321</b>	<b>.000</b>	<b>채택</b>
	대인적 제약 → 참가 빈도	-.071	.263	기각
	대인적 제약 → 참가 기간	-.024	.708	기각
	대인적 제약 → 참가 강도	.012	.854	기각

[그림 2]는 [표 3]의 결과를 제안모델로 나타낸 결과이다. 구조방정식 모델에서 인과효과는 직접효과(direct effect)와 간접효과(indirect effect)로 구분된다. 직접효과는 사회체육활동 참가 제약이 참가 정도에 미치는 영향이며, 간접효과는 사회체육활동 참가 제약이 참가 동기를 통하여 참가 정도에 미치는 영향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접효과는 구조적 제약 → 참가 기간 [ $\gamma = -.263$ ] 과 개인내적 제약 → 참가 빈도, 참가 강도 [ $\gamma = -.317 + -.321 = -.638$ ] 로서, [ $\gamma = -.263 + -.638 = -.901$ ] 이다. 간접효과는 구조적 제약 → 사회적 동기 → 참가 빈도 [ $\beta = -.103 \times .123 = -.012$ ], 구조적 제약 → 휴식적 동기 [ $\beta = -.102 \times -.206 = .021$ ] 로서 [ $\beta = -.012 + .021 = -.009$ ] 이다. 간접효과는 직접효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미하게 나타났다. 총 인과효과는 직접효

과  $[-.901]$ 과 간접효과  $[.009]$ 를 합산한 값  $[-.901 + .009 = -.892]$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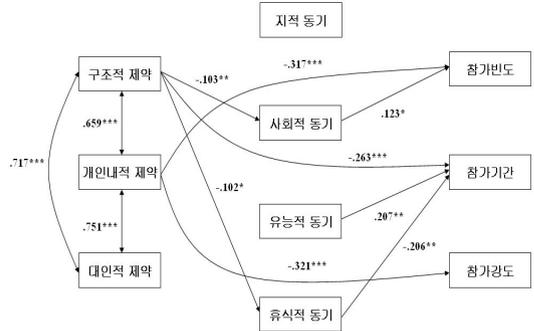


그림 2. 사회체육활동 참가 제약과 참가 동기 및 정도의 관계에 관한 경로모델

## V. 논의 및 결론

### 1. 논의

이 연구의 핵심적 쟁점은 사회체육활동 참가 제약과 동기 및 정도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있다. 그동안 체육학 연구영역에서는 사회체육활동 참가 경험이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규명하기 위하여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여 왔으나, 사회체육활동 참가 제약과 동기 및 정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사회체육활동 참가 제약이 동기 및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사회체육활동 참가 제약이 참가 동기 및 정도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안 모델과 가설 검증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모델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이 연구에서 설정한 초기 연구모델의 모델부합지수인 절대부합지수 [카이자승치( $\chi^2$ ), 자유도(df), 유의도(p), 기초부합지수(GFI), 근사원소평균자승오차(RMSEA)], 증분부합지수 [조정부합지수(AGFI), 비표준부합지수(NNFI)], 간명부합지수 [비교부합지수(CFI)] 는 전반적으로 모델인정 조건 및 기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변수간의 인과관계에 있어서 무의미한 경로가 있고 측

정오차간의 공변량이 발생하고 있는 데서 그 원인의 일단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모델 검증을 위해서는 이론적 범위 내에서 반복적인 분석과 모델 수정 과정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김경식(2007)[1], 김계수(2001)[3], Anderson과 Gerbing(1988)[8]의 모델 개발 제안 과정에 의거하여 연구모델을 수정함으로써 모델의 적합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25개의 무의미한 경로를 제거하고 수정지수(modification index)를 토대로 하여 측정오차간의 공변량을 자유화시켜 현실 적합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수정모델의 부합지수는 크게 향상되어 적합기준을 넘어서고 있는 데, 이는 수정모델이 사회 현실을 잘 반영·설명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가설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사회체육활동 참가 제약은 동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체육활동의 구조적 제약이 클수록 사회적, 휴식적 동기는 약화되는데, 이는 사회체육활동 참가 제약 가운데 시설, 지도자, 프로그램, 시간 등의 구조적 제약이 사회체육활동 참가 동기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조적 제약은 사회체육활동 참가의 사회적, 휴식적 동기를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참가 정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사회체육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전개해 오고 있으나, 아직도 일반 수요자인 참가자의 경우에는 사회체육의 구성요소라 할 수 있는 시설, 프로그램, 지도자 등에 대해 부족함을 느끼고 있으며, 이것이 사회체육활동 참가 동기를 무력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체육활동 참가의 주요 영향 변수인 참가 동기를 강화하여 사회체육활동 참가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시설 확충, 전문 지도자 양성 및 배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을 통하여 구조적 제약을 완화, 해소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충남의 경우에는 수도권에 비해 체육환경이 열악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이유리·박미석(2006)[4]은 여가제약이 여가동기에 미치는 구조모델 연구에서 구조적, 대인적 제약이 여가동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함으로써 위의 결과를 지지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여가동기 변수를

단일 개념의 이론변수로 가정함으로써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둘째, 사회체육활동 참가 동기는 참가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사회체육활동 참가 동기 가운데 사회적 동기가 높으면 참가 빈도는 증가하며, 휴식적 동기가 높으면 참가 기간은 감소한다. 특히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대인관계를 형성, 유지하려는 운동 참가자는 그만큼 사회체육활동에 더욱 빈번하게 참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사회적 동기가 참가 빈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다음 두 가지의 긍정적 결과를 파생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축적이며, 다른 하나는 문화적 자본(cultural capital)의 축적이다[9]. 사회적 자본은 사회체육활동의 장에서 운동 참가자사이에 형성되는 무형의 자본으로서, 신뢰, 결속 또는 공동체 의식, 연결망의 지표가 된다. 오늘날 신뢰 받지 못한 사회, 그리고 개인적 이기주의가 팽배한 사회에서의 적극적인 사회관계 형성 의지는 사회체육활동 참가로 나타나고, 결국 참가자들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하여 사회적 자본 축적의 혜택으로 귀착된다. 문화적 자본은 문화적 취향이나 기술 등이 세대나 집단에게 전수되는 무형의 자본이라 할 수 있다. 대인관계를 맺으려는 사회적 동기는 적극적인 운동 참가를 이끌어 내고, 결국 사회체육활동의 장에서 운동 문화나 기술 등이 전수되어 하나의 자본 축적에 기여하게 된다.

셋째, 사회체육활동 참가 제약은 참가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체육활동 참가 제약 가운데 구조적 제약이 크면 참가 기간은 감소하며, 개인내적 제약이 크면 참가 빈도와 참가 강도는 감소한다. 사회체육활동 참가자는 시설, 지도자, 프로그램 등 사회체육활동의 구조적 제약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을수록 운동 참가 기간이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구조적 제약이 사회체육활동 참가를 어렵게 하여 중도탈락의 주된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시설, 지도자, 프로그램 등의 사회체육 구성요소에 대한 정부의 투자는 곧 일반대중의 스포츠에로의 사회화를 유도할 뿐만 아니라, 운동 참가자의 중도탈락을 방지하는 중요한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 개인내적 제약이 사회

체육활동 참가 빈도와 강도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는 사회체육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사회체육 정책이 사회체육 구성요소 외에도 질적인 사회체육활동의 참가를 개선시키는데 모아야 함을 알 수 있다. 사회체육활동 참가 빈도와 강도를 높여 운동 참가의 질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체육활동 참가자 스스로가 의욕을 갖고 운동을 통해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내적으로 동기화되어야 한다. 정부에서는 일반 대중의 내적 동기 유발을 위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회체육 정책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 2. 결론

이상과 같은 연구방법 및 절차를 통해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체육활동 참가 제약은 참가 동기에 영향을 미친다. 즉, 사회체육활동 참가 제약 가운데 구조적 제약이 클수록 사회적, 휴식적 동기는 약화된다.

둘째, 사회체육활동 참가 동기는 참가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 즉, 사회체육활동 참가 동기 가운데 사회적 동기가 높을수록 참가 빈도는 증가하며, 휴식적 동기가 클수록 참가 기간은 감소한다.

셋째, 사회체육활동 참가 제약은 참가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 즉, 사회체육활동 참가제약 가운데 구조적 제약이 클수록 참가 기간은 감소하며, 개인내적 제약이 클수록 참가 빈도와 강도는 감소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사회체육활동 참가 제약이 참가 동기를 통하여 참가 정도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론적, 경험적으로 타당한 결론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과효과에서 사회체육활동 참가 제약이 참가 동기를 통하여 참가 정도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미미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여가 연구에서 동기 변수의 중요성과는 다소 괴리가 있는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의 후속연구에서는 사회체육활동 참가 제약과 참가의 관계에 있어서 협상 또는 타협(negotiation) 변수를 적용하여 사회현상에 대한 설명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1] 김경식, 상업스포츠시설 소비자의 운동참가지속 과정 구조모델 분석. 한국체육학회지, Vol.45, No.6, pp.399-411, 2007.
- [2] 김경식, 권민혁, 정책투자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사회체육활동 참가제약 척도 개발과 적용,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Vol.20, No.2, pp.159-173, 2007.
- [3] 김계수, AMOS를 활용한 구조방정식 모델. 서울: SPSS 정보회사, 2001.
- [4] 이유리, 박미석, 생태학적 관점에서 본 여가제약, 여가동기, 여가참여의 관계. 한국가정학회지, Vol.24, No.1, pp.11-30, 2006.
- [5] 원형중, 성인근로자의 여가활동 참여동기와 제약 요인에 관한 기본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Vol.37, No.2, pp.369-386, 1998.
- [6] 조선배, LISREL 구조방정식 모델. 서울: 영지문화사, 1996.
- [7] K, Alexandris and C, Tsorbatzoudis, Perceived constraints on recreational sport participation: Investigating their relationship with intrinsic motivation, extrinsic motiva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Vol.34, No.3, pp.233-252, 2002.
- [8] J, C, Anderson and D, W, Gerbing, The effect of sampling error on convergence, improper solutions, and goodness-of-fit indices for maximum likelihoo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metrika, Vol.49, pp.155-173, 1998.
- [9] P, Bourdieu, The forms of capital. In J. G. Richardson(ed.)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NY: Greenwood, 1986.
- [10] B, Carroll and K, Alexandris, Perception of constraints and strength of motivation: Their relationship to recreational sport participation in

- Greec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Vol.29, No.3, pp.279-299, 1997.
- [11] D, W, Crawford, E, L, Jackson, and G, A, Godbey, Hierarchical model of leisure constraints. Leisure Sciences, Vol.13, pp.309-320, 1991.
- [12] J, Hubbard and R, Mannell, Testing competing models of the leisure constraint negotiation process in a corporate employee recreation setting. Leisure Sciences, Vol.23, No.3, pp.145-163, 2001.
- [13] E, L, Jackson, Recognizing patterns of leisure constraints: Results form alternative analysi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Vol.25, pp.129-149, 1993.
- [14] E, L, Jackson, Will research on leisure constraints still be relevant in the twenty-first century?. Journal of Leisure Research, Vol.32, No.1, pp.62-68, 2000.
- [15] Losier, A motivational model of leisure participation in the elderly. Journal of Psychology, Vol.127, No.2, pp.153-170, 1993.

#### 저 자 소 개

김 경 식(Kyong-Sik Kim)

정회원



- 1994년 2월 : 경기대학교 사회체육학과(체육학사)
  - 2006년 2월 :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교육학석사)
  - 2004년 2월 :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체육학박사)
- 2007년 10월 ~ 현재 : 호서대학교 사회체육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상업스포츠 소비행위, 실버스포츠산업, 사회자본, 사회연결망